



역사의 폭풍 속에 휘말린 지식인像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 잡지 기자 李和洵씨

지금 독서중

정치, 혁명, 이데올로기, 이런 무거운 것들에 비해 인간 개인의 삶이란 얼마나 가볍고 보잘 것 없는 것들인가.

그러나 동시에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가.

영화전문지 월간 「스크린」 기자 李和洵씨(28)는 요즘 체크출신의 세계적 작가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1988)을 읽으며 역사의 거대함보다는 그 역사의 水面 밑에서 움직이는 작은 물방울들인 개인으로서의 인간에 새삼스런 각성을 느끼고 있다.

“프라하의 봄을 배경으로 자유주의 지식인들이 겪는 수난과 좌절을 다소 사변적으로, 그러나 담담한 필치로 그린 작품입니다. 육체와 영혼, 집단과 개체, 삶의 의미와 무의미, 존재의 가벼움과 무거움 등에 대한 쿤데라 특유의 통찰력을 따라가다 보면 개인적인 삶들이 오늘의 정치사회적 현실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죠.”

영화화된 것을 먼저 보고 깊은 매혹을 느껴 그 매혹의 원천을 탐사해보고 싶은 생각에서 “글로 복습하고 있다”는 이화순씨가 이 작품에서 발견한 매력은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다. 역사의 폭풍 속에 휘말린 지식인의 심리와 행동양태라는 엄숙한 주제를 경쾌하게 읽히게 하는,性に 대한 대단히 독창적이고 흥미로운 분석을 또한 만난다.

“의사 토마스과 그의 아내 테레사, 토마스의 정부이자 화가인 사비나, 사비나가 망명지에서 만난 남자 프란츠를 중심축으로 전개되는 이 작품은 재미있는 연애소설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스의

여성편력과 사비나의 남성편력을 통해, 性的 ‘현기증나는’ 실상이 환상과 아이러니의 섬세한 교차 속에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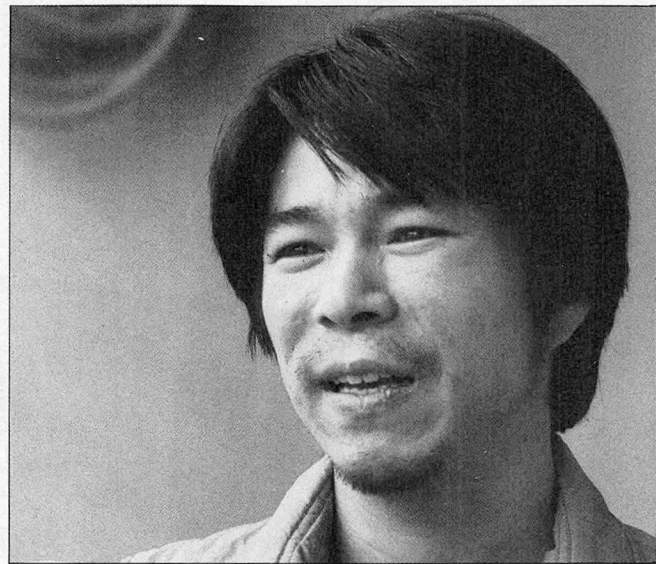
말하자면, 높은 문학적 성취를 거두고 있으면서도 소설이 가진 본래의 재미를 잃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 작품의 가장 큰 미덕이라는 것. 그래서인지, 이미 영화로 보아서 대강의 줄거리를 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품의 신선도가 전혀 훼손당하지 않는 드문 경험을 이 책은 제공한다.

그런 신선도는 작가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의 복잡성에 빚지고 있다는 것이 또한 이화순씨의 생각인데, “일면적 판단을 허용하지 않는 복잡성이야말로 거듭 읽을수록 새로워지는 이 작품의 힘”이라고 그는 말한다.

단 한편의 소설로 생각지도 않은 ‘쿤데라펜’이 되어버린 이화순씨의 ‘활자밥’ 경력은 5년. 이제 잡지판의 생리에 익숙해져 웬만큼 노회해질 법도 한데 아직까지도 사람 만나는 일을, 그것이 기자의 본업임에도 불구하고, 썩 내켜하지 않는다. 대신, 그런 대인관계에서의 자신의 부족함을 공부로 벌충한다.

좋아하는 영화를 다루는 잡지기자로서 열심히 영화도 보러 다니고, 또 요즘들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영화학 관련도서들을 부지런히 찾아 읽는 노력도 아끼지 않는다. “영화기자로 대성하겠다는 것과는 별도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다 잘 이해하려는 노력에 철저해져야겠다”는 것이 그 스스로의 다짐이다.

— 강철주 기자



민감한 감성으로 우리사회를 노래 申東暉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 만화가 이희재씨

지금 독서중

“만화가 공인이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해요. 이제 우리의 만화도 상업주의적

성향에서 탈피하여 우리의 정서, 우리의 상황에 맞는 ‘바른 만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때죠. 그런 취지에서 만든 모임이 바로 ‘바른만화 연구회’입니다.

얼마전 발기된 젊은 만화가들의 새로운 모임 ‘바른만화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李熾宰씨(38)의 만화론은 무척 건강하다. 만화를 그리기 시작한 지 19년째인 그의 대표작은 맑은 눈이 특징적 이미지로 떠오르는 ‘악동이’. 요즘은 단편과 카툰형식을 자유로이 구사하면서 우리 사회의 모순을 꼼짝없이 끄집어내 보여주는 날카로움으로 독자들의 시선을 새롭게 모으고 있다.

바른 만화를 만들고자 하는 이희재씨의 내밀한 노력은 그의 책임기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작업실 서가에 빼곡히 들어찬 책들 속에서 선뜻 뽑아 보여준 것은 신동엽시인의 시선집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창작과 비평사)였다.

“만화는 시대를 앞질러가는 고도의 지적 상상력을 필요로 하지요. 시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시와 만화가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사회의 잘못된 부분에 메스를 들이댈 수 있는 기능을 맡아야 한다는 얘기죠.”

어느 잡지에 소개된 것을 보고 이 시집을 사면서 마치 사랑에 빠진 연인들처럼, 두근거리는 자신의 심장소리를 들을 정도로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고 이희재씨는

고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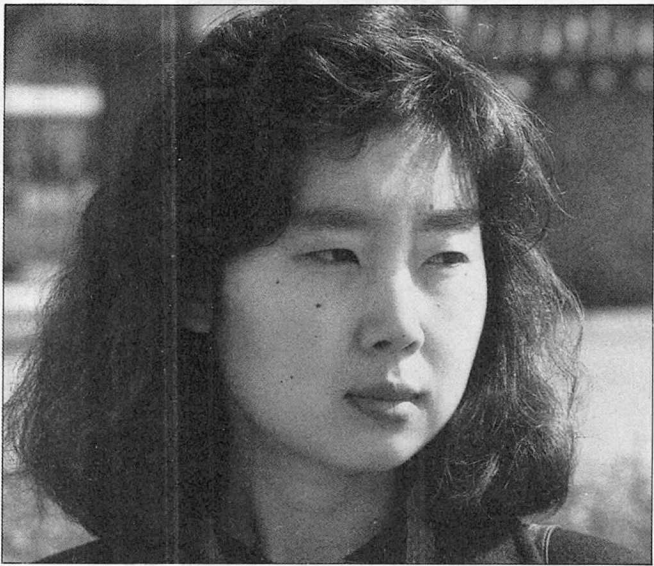
올해로 신동엽시인의 20 周忌를 맞지만, 이 시집은 10주기 때 묶어낸 선집으로 당시 사회분위기에 의해 중요한 몇 작품은 제외된 채 엮여져 있다. 이희재씨는 이 선집의 작품들 가운데 「진달래 山川」 「鍾路五街」 그리고 「錦江」을 특히 좋아한다며 「鍾路五街」의 한 구절을 들려준다.

“이슬비 오는 날/ 낮선 소년이 나를 붙들고 동대문을 물었다/ 그 소년의 죄없이 크고 맑기만 한 눈동자엔 밤이 내리고/ 노동으로 지친 나의 가슴에선/ 도시락 보자기가 비에 젖고 있었다.”

“이웃과 사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토록 진한 정감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암울한 사회에서 세밀하고 여린 구석구석까지 맑고 고운 우리말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분의 절실하고 진지한 사회의식은 하나하나 각인되듯 가슴에 담겨지는 것 같군요.”

시대물을 잘 소화해내는 방학기씨를 동료만화가로서 좋아한다는 이희재씨가, 요즘 한창 진행중인 작업은 「만화로 보는 한국의 역사」. 구석기시대부터 현대에 걸친 방대한 역사를 그리기 위해 한국통사에 관한 기본 독서를 해야만 한단다. 이희재씨가 지닌 대부분의 책들이 역사와 사회과학서적인 점을 보아, 그의 작품에 대해 우선 신뢰감을 가져도 좋을 듯하다.

화장실과 잠자리에서도 책을 펼쳐드는 게 체질화됐다는 이희재씨의 말을 들으며, 책임은 만화가의 건강한 상상력에서 탄생되는 만화라면 우리의 어지러운 현실세계를 말끔히 씻어줄 수도 있으리란 기대를 가져본다. 아마 그래서 우리는 만화에 더욱 매력을 느끼나 보다. — 김지원 기자



화가가 알려주는 이 세상 비밀이야기 F. 프랑크의 「죽기 전에 이 세상을」

— 불란서문화관 도서실 사서 吳蘭伊씨

지금 독서중

프랑스영화의 고전과 최신작을 부담없는 요금으로 구경할 수 있는 곳, 경북공담을 따라 걸으며

도심에서는 느끼기 힘든 한적함을 맛볼 수 있어 더욱 좋은 곳이 바로 불란서문화관이다.

정문을 통과하기 위해 몇차례의 신분증검사와 몸수색을 거쳐야 하는 국내의 몇몇 외국문화원들에 비하면, 불란서문화관은 일부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소리없이 사랑받는 어엿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위치를 자랑한다.

프랑스문학을 전공하거나 관계자료를 필요로 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가장 잦은 장소가 바로 문화관내에 설치돼 있는 도서실이다. 도서실 전담사서로 만5년 동안 일해오고 있는 吳蘭伊씨(28)의 눈과 손은 그래서 오늘도 분주하기만 하다.

“사서일이라는 게 한가하다가도 사람이 몰리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어요. 도서실 장서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전담사서는 저 한사람뿐이어서 업무가 벅할 때도 많아요.”

吳蘭伊씨의 말처럼, “사서이기는 하지만 고용인의 처지로 근무 중의 한가한 시간에 개인적인 독서를 하기는 힘들고” 한쪽으로 불문과 전공 대학원 졸업논문을 준비하는 틈틈히 휴일을 이용해 들춰보고 있다는 책이 바로 미국의 화가 프레데릭 프랑크가 쓴 「죽기 전에 이 세상을」(류시화 옮김, 선일문화사, 8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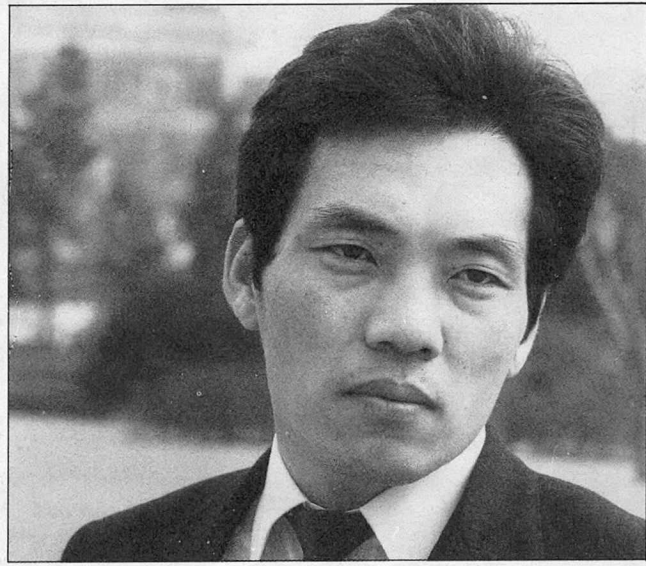
책의 앞뒤를 살펴봐도 저자에 관한 특별한 소개는 없고, 다만 르네상스인이라 별명으로 불릴만큼 다재다능한 화가이며 뉴욕시 근처에 18세기 물방앗간을 개조해

‘땅위의 평화’라는 이름의 집을 짓고 사는 약간은 기인의 풍모를 지닌 사람이라는 정도 뿐이다. 프랑크는 「죽기 전에 이 세상을」 말고도 「마음의 눈 마음의 그림」 「열린 눈 열린 마음」을 펴내기도 했는데, 모두 화가의 눈을 통해 본 삶의 의미를 잔잔하면서도 감동깊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머리로 해서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해 가슴으로 알아듣는 이야기... 안보고 안겪고 속속들이 살아 보지 않은 것은 한마디도 없이 꼭 말해야 하는, 말로 할 수 없는 그것이 조금이나마 전해지길 바라며, 가치를 쳐낸 뒤 남은 말들로만 하는 이야기... 내 집 뒤 작은 개울 위를 떠 흘러가 머지않아 빠른 물살에 휩쓸려 흘러가는 잎사귀 같은 것들... 지금부터 말하려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다.

이처럼 말없이도 서로의 뜻이 통하는 ‘以心傳心’의 지극히 동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저자는 예술가의 자세와 진정한 삶을 향한 求道의 길을 말한다.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현혹하는 온갖 꾀계를 벗겨내 ‘바로 볼’ 줄 아는 눈의 자세를 역설하는 그의 사연들은, 요란하고 거창하거나 기발한 것이 아니기에 오히려 신선함과 진한 감동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가하면 전세계 미술관들을 찾아다니며 램브란트, 고야, 피카소 등 대가들과 나눈 대화를 그린 프랑크 자신의 스케치들도 이 책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다.

吳蘭伊씨는, 자신처럼 “감성이 무딘 사람에게도 살아가는 의미와 재미를 느끼게 만드는 좋은 책”이라고 말하며 담담하게 미소지었다. — 오애리 기자



우리시대의 마지막 음유시인 레오나드 코헨 詩選集

— 시인 河在鳳씨

지금 번역중

팝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캐나다 출신의 가수 레오나드 코헨이란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수잔’ ‘넨시’ ‘페이머스 블루 레인코트’ 등 약간 우울하면서도 감미롭게 다가드는 그의 노래속엔 삶에 대한 깊은 우수와 서정이 서려 있다. 그의 노래가 상당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수준높은 음악팬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코헨의 팬들은 많아도 정작 그가 전후 영어사용권에서 가장 뛰어난 시인 가운데 한사람임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가 67년 자신의 기타반주로 자신의 시들을 읊조리듯 노래하기 전에 그는 이미 4권의 시집과 2권의 소설집을 펴낸 바 있는 유망한 문필가였다.

“코헨은 시를 쓰는 대중가수라기보다는 시와 음악이 혼연일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시대 마지막 吟遊시인입니다. 20세기 영미대표시인선집을 들춰보면 그가 T.S.엘리어트와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문학사적으로는 후기낭만파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젊음, 사랑에 대한 욕망, 방황하는 인물들이 주요 테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안개와 불」이라는 시집을 출간한 젊은 시인 하재봉씨(34)는 ‘가수로는 유명해도 문인으로는 생소한’ 코헨의 시를 번역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34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난 코헨은 15세 때 가출하여 사회주의자들의 공동체로 갔고 거기서 기타치는법을 배웠다. 그후 그의 삶에서

사회주의 이념은 서서히 사라졌지만, 기타는 그의 모든 작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는 맥길대학에 입학, 55년 학위를 받았고 이후 굴곡있는 생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저술활동을 전개했다. 한때 정신병원 신세를 지기도 한 그는 현재 ‘히드라’라고 불리는 그리스의 조그만 섬으로 이주, 그곳에서 언어와 가락을 다듬고 있다.

“애초면 저음의 목소리처럼 그의 시세계도 허무와 슬픔으로 짙게 채색돼 있었어요. 자살 충동을 느끼는 젊은이들이 코헨의 음악에 빠지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요. 우리가 사는 세계의 황폐함과 실존적 불안, 상실감을 빛나는 감각으로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재봉씨는 코헨의 시세계는 한마디로 ‘악마적 신비주의’라고 이름붙일 수 있다면서 ‘마약과 꿈’이 그의 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실 저편의 신비적 세계로 인도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며, 이때 초월의 매개가 되는 것이 바로 환상과 종교(유태교)라고 한다.

“탈무드적이라고나 할까... 유태교에 대한 지식 없이 그의 시를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시번역도 그점에서 상당한 애로를 겪었어요. 코헨이 다운타운가의 젊은층의 사랑을 받는 감상적인 대중가수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릴 수 있다면 내 번역의 목적은 성취된 셈입니다.” 미국 밖에서 앨범이 5백만장이 넘게 팔려나간 코헨의 시집이 우리나라 독자들에게는 어떤 반응을 얻을지 河시인은 무척 궁금해하고 있다. 번역시집의 제목은 일단 「수잔과 함께 강가에 앉아」로 정했다고.

— 김지원 기자